

제6회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 학술대회

<토론자료집>

일 시 | 2016. 11. 18. ^금 09:00~17:15

장 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공동주최 | 대한가정학회 · 대한범죄학회 ·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 한국사회학회 · 한국심리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 · 한국아동복지학회 · 한국아동학회
한국조사연구학회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 한국청소년학회

주 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후 원 | 여성가족부

목 차

제 1 주제 청소년 비행/폭력

1. 애착외상과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의 관계: 부정정서의 매개효과와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1
• 어윤경(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 청소년 사이버 비행 영향요인 분석: 학교급별 차이 중심으로 4
• 고정은(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 청소년 비행의 변화궤적에 대한 잠재계층분류 및 예측요인 탐색 : 자아인식, 정서문제, 친구요인을 중심으로 6
• 권순형(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제 2 주제 휴대폰/컴퓨터 이용

1. 청소년의 휴대전화 이용유형과 특성
• 최영돈(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토론팀장/사회학 박사)
2. 휴대전화 의존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의 매개효과: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8
• 조남익(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교수)
3. 휴대전화의존도 변화 궤적과 부모의 양육방식, 또래애착, 학습습관 및 내재화 문제의 구조관계 10
• 이윤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4. 청소년의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의 종단적 변화와 주관적 학업성취도의 관계 12
• 김윤나(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제 3 주제 부모/가족관계

1. 부모 양육방식의 군집 유형에 따른 아동·청소년 학습습관의 차이 15
• 박선영(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 아동학대 변화궤적유형과 예측요인 17
• 류재윤(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3. 과보호 양육, 자아 탄력성 및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 19
• 안권순(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4. 아동의 가정 및 학교 내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의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 검증 22
• 성미애(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교수)

제 4 주제 학교적응

1. 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양상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시간효과 연구 24
• 전경숙(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2.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6
• 이예진(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3. 중등학교 졸업예정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28
• 이정희(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4.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검증 30
• 임선아(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조교수)
5. 고등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 잠재프로파일 분석 31
• 이정아(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제 5 주제 학업/진로

- 1 초·중등 교육기간 동안 우리나라 학생들의 주관적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 탐색 33
•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학과 교수)
- 2 비인지적 학업성취로서 자존감과 행복감의 인과관계 분석 36
• 유한구(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3 청소년기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관계 38
• 박가열(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 4 청소년의 미래지향목표가 공동체의식과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39
• 박선영(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제 6 주제 신체/정서발달

- 1 아동의 BMI 수준에 따른 BMI·신장·체중의 발달적 경향성과 종단 변화율의 차이 및 원인 41
• 김동학(한양대학교 예체능대학 겸임교수)
- 2 빈곤과 방임이 아동발달단계별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44
• 조영일(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 3 별점회귀모형을 통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탐색 46
• 양정호(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4 청소년 알파(Alpha)성격과 정서행동문제의 종단적 유형의 관계 48
• 이미리(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제 7 주제 사회/공동체의식

- 1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의 확장된 공동체에 대한 이타적 목표의식에 미치는 효과 50
• 김태균(성산효대학원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부교수)
- 2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양상과 공동체의식의 변화에 대한 종단 연구 ... 52
• 도남희(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3 청소년 체험활동과 공동체의식간의 인과관계 54
• 전명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본부장)
- 4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다문화수용성 결정 요인의 연차별 추이 분석 56
• 박옥식((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이사장)
- 5 초등학교의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59
• 오승근(명지전문대학교 청소년교육복지학과 교수)

제 8 주제 또래/친구관계

- 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 교우관계 및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및 이성교제 경험에 따른 잠재평균과 영향력 차이 검증 61
• 김한나(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2 중학생의 팬덤활동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63
• 방은령(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 3 부모 애착 관련 관계 변수 및 시간 변수가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65
• 유홍식(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4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분석 연구 67
• 손병덕(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 9 주제 대학원생 논문 공모 수상작

- 1 학교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할함수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관계 분석 69
• 임성택(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2 순차적 경로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도의 잠재집단 간 종단적 변화 분석 71
• 임성택(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3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청소년 직업가치 유형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73
• 임성택(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애착외상과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의 관계: 부정정서의 매개효과와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토론문

어윤경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근 들어 심각성을 더해가는 아동·청소년의 각종 부적응 행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 중독도 학습몰입을 방해하여 학교 부적응을 야기시킬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소가 학교인 만큼 학교 부적응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행복한 학교생활은 교육의 핵심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초(5~6학년)·중·고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한 '서울학생행복지수'(2012) 연구보고서를 보면 학교생활 영역, 가정생활 영역, 자신 영역 및 전반적 영역에서 행복도 지수는 평균 3.83(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전체 5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행복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학교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학습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부적응 행동도 학습몰입을 방해하여 학교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부모, 교사 모두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할 문제이다.

한편 보건복지부(2006)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중 정서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이 전체 700명 조사자 중 20% 이상 되었고 비행 청소년의 전조가 되는 반항 행동을 보이는 학생도 11%에 달한다고 하였다(김완일, 2012).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동·청소년은 학습에 몰입하기 어렵고 이는 곧 학교 적응을 어렵게 만들어 부적응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 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활발히 개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개입은 방과후 지도나 정학 등을 통해 비행행위를 제재하는 것이었다(Anderson & Kincaid, 2005).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표면적으로 현상을 감소시킬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요구에 비해 질적 수준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질적 수준의 제고가 요구된다(오인수 외, 2013).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부적응 행동을 심리 상담적 측면에서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심리적 치유과정이나 부정정서에 대한 기초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아동의 부정정서를 심층적으로 다룸으로써 성장기에 애착외상을 갖게 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적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부정정서와 자아탄력성에 주목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과 부적응 행동의 감소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부정정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 몰입을 향상시키고 학교에서의 적응행동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연구의 의미가 크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부정 정서로 사회적 위축과 우울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부정정서 중 공격성의 문항도 동시에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위요인	문항내용
공격성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하루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아무 이유없이 울 때가 있다.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즉, 아동·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정정서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Bushman et al., 2005; 이근배, 조현춘, 2011). 부정정서에는 분노 이외에도 우울, 공격성, 사회성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황선주, 2012; 김영숙 외, 2009). 공격성은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기도 한다. 또 청소년기에 형성된 공격성은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반사회적 행동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황선주, 2012). 더욱이 공격성에 우울성향 등이 동반되는 사례가 많아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황선주, 2012).

김영숙과 동료들은(2009) ADHD 청소년을 세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내재화 장애 유형, 과잉(충동)행동 유형, 부주의 유형이 그것인데 특히 부주의 유형인 경우 사회적 위축 경향을 띄는 경우가 많으며, 행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부정적 시선이 사회적 위축을 야기하고 이것이 우울성향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여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처럼 부정 정서에 속하는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성향은 어느 한가지 특성만 나타난다고 볼 수 없고 동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성도 부정정서에 포함시켜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완일 (2012). 자기개념 복잡성과 심리적 건강의 관계:자기 개념 구체화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3(2), 979-994.
- 김영숙, 윤여홍 (2009). 교사와 부모를 위한 특수아 상담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오인수, 이승연, 이주연 (2013).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을 위한 교육적 개입에 관한 연구.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정책연구 RR-1차-03-2013.

- 이근배, 조현춘 (2011). 반추초점과 분노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2), 397-418.
- 정현임 (200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제 1~5차 조사데이터 유저가이드.
- 황선주 (2012). 우울-품행장애 성향 청소년의 전위공격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 Anderson, C. M. & Kincaid, D. (2005). Applying behavior analysis to school violence and discipline problems: Schoolwide positive behavior support. *Behavior Analyst*, 28. 49-63.
- Bushman, B. J., Bonacci, A. M., Pedersen, W. C., Vasquez, E. A., & Miller, N. (2005). Chewing on it can chew you up: Effects of rumination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6), 969-983.

『청소년 사이버 비행 영향요인 분석: 학교급별 차이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고경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청소년의 사이버 상에서의 비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탐색하고 논의한 본 연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향요인 분석에 있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교급별로 차이를 발견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 문제를 이해하고 개입해야하는 학교 및 관련 현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본 토론자는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의 목적에 동의함을 말씀드리면서 연구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본 연구는 사이버 비행에 대한 연구로 연구의 필요성이나 이론적 배경에 사이버 비행의 개념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나, 그 개념정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연구의 필요성에는 오히려 사이버 불링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며, 사이버 비행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사이버 공간내 문제행동이라는 너무 광범위한 개념으로 설명하며 다른 용어들 간의 혼용문제 정도만 언급되며, 연구의 필요성만 강조하여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사이버 비행’을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불링’과 비교하며 설명하면서 연구자의 표현에 의하면 “사이버 비행은 사이버 상의 문제행동 및 일탈행위이며,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불링의 하위 유형”으로 이론적 근거 없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비행관련 개념정의에 있어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상의 문제행동 및 일탈행위란 무엇인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패널데이터에서 사용한 사이버 비행 관련 문항(채팅/게시판 거짓정보, 불법 소프트웨어 다운, 다른 사람의 아이디 도용, 채팅시 성별이나 나이 속이기, 해킹, 욕이나 폭력적 언어사용, 성인 매체 이용)과 연구자가 제시한 개념정의를 연결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연구의 부제목을 보면 청소년 사이버 비행 영향요인 분석에 있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급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 했으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을 구별한 이유에 대해서 연구의 필요성이나 이론적 배경에도 일관성 있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 통제변수에서 사이버비행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에 없는 ‘모학력’이 등장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자존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개인요인(연구자 역시 ‘개인의 정서요인’으로 표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인임에도 통제변수로 지정한 이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존감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사이버 비행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요인임이 드러난 만큼 그에 따른 통제 변수 지정에 대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 회귀모형의 예측을 위해서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상관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데 연구결과 상관계수 표에는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간의 상관계수만 나와 있고, 종속변수인 “사이버비행”이 누락되어 통제 및 독립변수와의 상관계수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없습니다.

**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집단 모두 청소년의 종속변수인 ‘사이버 비행’과 독립변수인 ‘현실 비행’ 간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을 현실 비행과의 관련성으로 설명하는 기존 선행연구결과에 대한 비교와 함께 연구자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중학생 집단의 경우 사이버 비행이 현실비행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사회적 위축과의 관련성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위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경우 본 연구에서 선정한 비행의 주요 행위들-조롱하기, 집단따돌림, 패싸움, 폭행, 협박, 절도-과의 관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유로는 연구자가 분석에 사용한 종속변수인 ‘사이버 비행’의 행위와 ‘현실 비행’의 행위들간의 유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연구자도 한계점에서 지적했듯이 ‘사이버비행’ 내용안에 사이버상의 대표적인 문제인 사이버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 비행문제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사이버비행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해야 하며, 논의에 있어서도 이전 연구들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본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사이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존감을, 또한 중학생 집단의 경우 사회적 위축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 실질적인 제언을 덧붙여 주신다면 교육현장에 사이버 비행의 개입과 예방에 있어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비행의 변화궤적에 대한 잠재계층분류 및 예측요인 탐색: 자아인식, 정서문제, 친구요인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청소년 비행 문제는 사회적 관심과 이목을 끄는 연구 주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비행 유형을 구분해 내고 이에 대한 영향 요인을 탐색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 분야에 상당히 유용한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하, 제시되는 토론의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론적 배경

-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청소년 비행, 자아인식과 비행, 정서문제와 비행, 친구요인과 비행 등 네 가지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의 비행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서의 고찰이라는 점에서는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후 어떠한 시사점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2. 연구방법

- 이 연구는 크게 잠재계층을 구분하는 부분과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등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과 관련하여 독립변인 설정에 있어 자아인식 변인군은 패널의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정서문제는 패널의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친구요인은 2~3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변인설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차수 년도의 자료를 혼합하여 활용하신 특별한 이유(패널 자료의 한계)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종속변인은 2~6차년도까지의 5개년도 자료를 활용한다고 서론에 기술되어 있는 바, 독립변인 가운데 자아인식은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변인들을 연구자들께서 일부 변환하여 활용하신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연구가 학술지 논문으로 발전되는 경우에는 변인 구성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 등이 뒤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분석방법과 관련하여 분석 모형에 해당되는 수식을 제시하면 보다 이해가 수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결론 및 논의와 관련하여

- 이 연구의 결론을 살펴보면, 본 연구 결과와 선행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비교를 통해 본 연구 결과의 타당화 및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결론에 드러난 연구자의 주장은 19쪽 후반부에 ‘...16세 이전에 청소년 비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비행의 증가양상을 줄일 수 있는 교육 및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1쪽에 ‘이에 청소년 비행에 있어 성인 범죄와 비교하여 또래집단이 중요하며, 비행청소년들의 집단적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등 이들 두 문장 외에 연구자의 결론에 해당하는 다른 부분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효과 검증이 이뤄져야겠으나, 이와 같은 검증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 및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4. 기타

- 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독립변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 15쪽에 ‘잠재계층별 학년에 따른 비행 변화궤적 곡선’에 그림상의 범례 제목이 ‘비행 변화궤적곡선’으로 되어 있는 바, 확인 부탁드립니다.

『휴대전화 의존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서 자기조절 학습의 매개효과』에 대한 토론문

조남익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5)의 조사에 따르면 고학년 초등학생(4~6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59.3%, 중학생은 86.6%, 고등학생은 90.2%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미디어 세대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세대에게 휴대폰은 삶의 일부이자 생활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시선은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은 필요하긴 하나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계륜(雞肋)과도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

청소년 휴대폰 사용에 대한 사회의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휴대폰의 청소년 보급률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대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생활에서 휴대폰으로 인한 갈등과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와 고민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휴대폰 의존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토론자로서 본 연구의 의도와 의미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설계에 대한 부분이다.

휴대전화 의존과 자기조절학습, 학교적응의 관계를 보기 위해 4차 년도 휴대전화 의존도(중1), 5차 년도 자기조절학습(중2), 6차 년도의 학교적응(중3)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중학교를 시작할 시기의 휴대전화 의존도가 자기조절 학습 능력을 매개로 중학교가 마무리되는 중3에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되는데 문제는 중3시기에 학교적응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중3은 이미 학교 적응이 거의 끝난 시점인데 중학교 시작 시점에서의 휴대전화 의존성이 학교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별도의 해석의 과정에서 통제변수도 활용하지 않아 연구의 결과를 신뢰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매개효과의 설득력에 대한 부분이다.

휴대전화 의존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있는데 학교 적응의 하위변인이 학습활동 이외에도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하위변인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주도 학습(성취가치, 숙달목적, 행동통제, 학업시간)이 이를 매개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한 논리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의 다양한 시각의 필요성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휴대폰 의존에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6%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였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휴대폰 의존이 높아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해석보다는 전반적으로 휴대전화 의존과 학교적응의 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것에 더 집중하여 해석할 필요도 있다. 청소년들이 휴대폰 사용은 일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OECD에서 제시한 DESECO 프로젝트에서는 성공적인 개인의 삶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필요한 역량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도구 활용능력, 둘째, 이질적 집단과 상호작용하기, 셋째, 자율적으로 행동하기이다. 이러한 생애역량을 잘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미디어 기기(휴대전화, 스마트 기기 등) 및 네트워크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활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두고 교사와 학생이 뺏고 숨기는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해 미디어 기기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스마트 수업 등에서는 휴대폰과 미디어 기기 등을 활용한 수업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에서도 휴대폰 등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다양한 관점, 특히 긍정적 활용의 관점에서의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시대변화에 주목하면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참여 및 사회적 자본의 확대, 자기성장 환경의 풍요화 등 미디어 등을 통한 다양한 성장의 기회 확대도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해 본다.

『청소년기 휴대전화의존도 변화궤적과 부모의 양육방식, 또래애착, 학습습관 및 내재화 문제의 구조관계』에 대한 토론문

이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휴대전화의존도 변화궤적에 따라 중학교 1학년 때 측정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 청소년의 또래애착 및 학습습관과 고등학교 3학년 때 측정한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간 구조관계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예민한 정서 문제에 대해서 내재화 문제로서 접근한 시도는 신선하였고, 문제의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이 시기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해결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이용에 따른 변화 궤적을 통해 각 요인들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것은 시의 적절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동안 관련 분야의 연구가 대부분 횡단 분석에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종단자료 분석을 실시했다는 것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연구를 수행하신 연구자분들께 감사하며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위해 추후에 더 좋은 논문으로 발전시키기에 고려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 연구 목적 및 도구 관련

- 연구에서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특성으로서 학생들의 정서문제의 일환으로 내재화 문제를 중점으로 삼아 살펴보았고, 구체화 된 것으로서 우울증과 주의집중에 초점을 맞춰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두 가지 특징을 왜 선택하였는지에 대해서 고3 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연구에서 이 특성이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중학교 1학년 때의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습습관을 고등학교 3학년 때의 내재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변인으로 삼고, 이에 대한 매개변인으로서 휴대전화의 의존도의 변화 궤적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의존도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에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변화궤적을 살펴보고자 하였지만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결과를 볼 때, 휴대전화 의존도가 1차에서 6차까지 평균 수치만 보더라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2.05(1차), 2.30(2차), 2.41(3차)로 증가하다가 고등학교 시기 2.38(4차), 2.31(5차), 2.31(6차)로 눈에 띄는 감소추세라고 하였지만, 5차와 6차는 수치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생각해볼 때 휴대전화 의존도의 변화궤적이라는 변인의 특성차이가 연구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을까에 대해서는 궁금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연구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연구 모형 및 분석 관련

-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1~6차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도 2010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총 2,351명에서 남학생 1,176명, 여학생 1,175명으로 구성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곳의 학교가 랜덤하게 선정되었을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데이터의 특성이 개인의 차이 뿐 아니라 학교 차이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위계적 데이터가 구조화 되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개인과 학교 간 위계 구조에 따른 특성 반영을 고려하지 않고 구조방정식으로 변인간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춘 이유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연구 대상에 대한 통제변인이 나타나있지 않아서 해당 분석과정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분되는 성별의 차이, 소득수준, 학업 성취도 등 개인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사전 변인간의 결과가 과잉으로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매개 변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또래 애착과 학습습관 간에 상관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모형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에 여러 방식의 검증을 해본 최적 모형의 형태를 연구에서 밝히셨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였습니다.

○ 연구 결과 및 논의 관련

-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방식과 또래애착, 학습습관이 휴대전화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상세한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최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에 있어 유용한 대안을 마련해줄 수 있는 기초연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주제로서 유익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연구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의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의 종단적 변화와 주관적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토론문

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청소년의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의 종단적 변화와 주관적 학업성취도의 관계는 IT 강대국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히 교육문화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토론자인 저 역시 그 연구 결과가 매우 궁금한 의미심장한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토론자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이 주제에 관심 있으신 학문공동체 모든 분들께서 저와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보고자 연구자의 발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질문으로 토론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소한 부분으로 1차년도의 자료분석 대상 수만 기입되어 있는데, 패널조사가 갖는 특성에 따라 조사대상자 수는 어떤 변화, 흐름을 갖고 있는지 함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서 고려해보고 싶어 조사대상자 명수를 표기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패널연구에서는 데이터 유실, 관리 문제가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데 이를 확인하는 것은 연구분석에 있어서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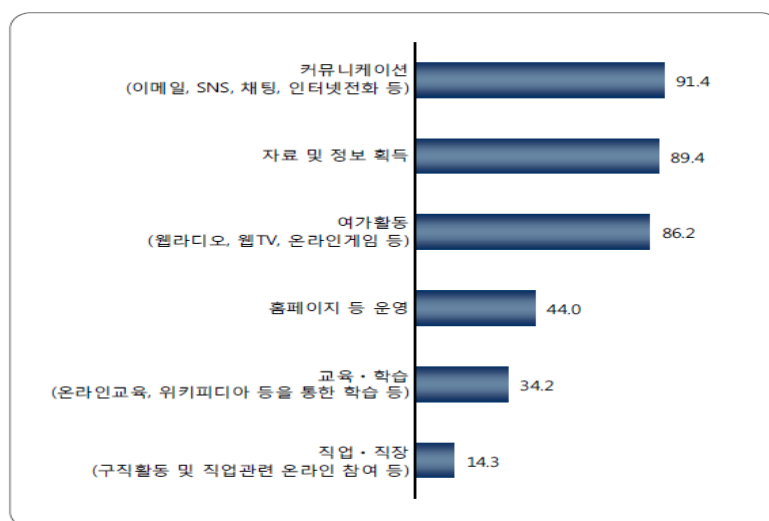
둘째, 연구결과를 잘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제언을 하느냐가 연구의 가치를 높이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1에서 고3까지의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았을 때, 3차년도인 중학교 3학년때 평균은 오히려 2.80에서 2.63으로 줄었고, 고등학교 때는 고2가 2.87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고1 2.84, 고3 2.81순이었습니다. 학습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빈도가 입시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중3, 고3때는 오히려 그 평균이 준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연구자의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일반고·자율고·특목고(어학계열, 과학계열) 등을 1로 코딩하였고, 특성화고와 예술계열 특목고 등은 0으로 코딩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무로 인해 실제 고등학교를 방문해보면 특성화고, 예술계열 특목고도 대학 진학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교사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본 연구결과 일반고·자율고·특목고 학생들과 특성화고, 예술계열 특목고 학생들의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긴 하였으나, 이는 학교에서의 과제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고, 제 두 번째 질문과도 연관지어봐도 상이한 연구결과일 수 있으며, 다양한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해석해서 일반고·자율고·특목고 학생들에 비해 특성화고, 예술계열 특목고 학생들은 학습을 뒷전으로 한다는 선입견 편견을 전제하거나 창출해낼 수도 있는 위험성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별, 학교유형의 변인은 변화될 수 없는 고착화된 변인이며 학업성취도의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변수의 사용은 성별 및 학교유형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등을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과 논의가 보다 풍부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별을 예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연구결과 내용 그대로 “모형2-4를 기준으로 조사 초기치인 중학교 1학년 때는 여학생들이 유의하게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의 학년 증가에 따른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 변화율에 있어서 모형2-1과 모형2-3에서는 유의하였지만, 모형2-4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학년 변화에 따른 학습목적 컴퓨터 사용 변화율은 여학생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성별특성을 반영한 교육 아이디어나 전략 등이 과연 뭐가 있을까도 고민되었습니다.

또한 만3세~70대의 63,218명의 패널 데이터를 통한 2015년 인터넷이용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본 연구결과와는 달리, 남성이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51.9%, 여성이 48.1%를 차지하여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다른 이 조사결과와의 상이점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연구자분의 의견도 궁금하였습니다.

넷째, 청소년기에 과연 학습목적만을 위주로 컴퓨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관한 의문입니다. 본 연구에서가 아니라 패널데이터를 구축하는 주체측에서 문항구성에 있어 다른 문항도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인터넷 및 컴퓨터와 관련된 문항으로 1) 학습 또는 업무 관련 정보 검색 및 사이트 이용 2) 학습(업무) 이외의 정보 검색 및 자료(음악, 영화 파일 등) 이용 3) 게임 및 오락 4) 채팅이나 메신저 5) 전자우편(e-mail) 6) 동호회, 카페, 커뮤니티 활동 7) 개인 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피, 페이스북, 트위터 등) 활동 8) 온라인에서 사고팔기(물품, 게임 아이템, 음악 파일 등) 9) 댓글 달기 10) 성인용 사이트 이용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인터넷이용실태 조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다른 문항들이 조사되어 이러한 내용도 참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향후 미래사회는 컴퓨터, 인터넷, 모바일 사회를 넘어서서 인공지능로봇, 스마트 트렌드리딩 기술,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등의 초지능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창의력의 창출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고 문 헌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201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모 양육방식의 군집 유형에 따른 아동 청소년 학습습관의 차이』에 대한 토론문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부모의 양육방식이며 종속변수는 학습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동/청소년의 학습습관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연구자들은 영향요인들 중에서 부모의 양육 방식에 주목을 하고 올바른 학습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부모 양육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연구논문이라고 이해됩니다.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의 분석과 해석은 논리적으로 잘 제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정책제언도 잘 제시되었습니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학습습관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좋은 논문 입니다. 다만 몇 가지만 보완한다면 좀 더 완성도 높은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첫째, 서론에서 연구자들이 왜 특정 종속변수와 왜 특정 독립변수에 초점을 두었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업성취에 대한 논의로 논문을 시작하기 보다는,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학습습관 형성이 왜 중요한지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서 학습습관과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에 대한 논의를 제시해주시고, 이러한 올바른 학습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학습습관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를 간략하게 제시해 주시고, 그중에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행연구 검토 파트의 page 5의 마지막 단락에서 학업성취가 아닌 학습습관을 종속변수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라고 기술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도라면 연구자들도 올바른 학습습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신 것이라 사료됩니다.

둘째, 선행연구 검토의 기능 중의 하나는 나의 연구모형(독립변수, 종속변수)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되고 수립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연구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 파트에서는 부모양육방식과 학업과의 관계가 먼저 제시 되었으며, 학습습관은 두 번째로 제시되었습니다. 학습습관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이므로 학습습관을 먼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1번으로 제시하신 부모양육 방식과 아동의 학업과의 관계도 내용을 보면 제목이 아동의 학업성취와

의 관계가 더 나을 듯 하며, 본 선행연구 검토도 좋지만, 학습습관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 분석연구 검토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다면 없다고 기술하셔도 되지만, 왜, 부모양육방식과 학업(학업성취)간 상관관계 연구를 여기에서 검토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주신다면 논문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셋째, 향후 좀 더 완성된 논문을 위해서는 부모양육방식 외에 다른 통제변수들(예를 들어 나이, 성별, 학년, 지역, 가족형태 등)을 설정하여 아동·청소년의 학습습관과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시고,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부모양육방식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진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 연구결과에 대해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분석을 잘 제시해주셨습니다. 연구논문 결과가 실제적으로 정책, 법, 제도에 반영된다면 가장 바람직한 논문일 것입니다. 두가 지 정책제언을 잘 제시해주셨는데 교육현장과 가정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구체적/실용적 정책을 한~두개 정도 더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 변화궤적유형과 예측요인』에 대한 토론문

류재운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아동발달시기별 학대경험의 변화궤적의 유형화과정과 유형화된 집단이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우리나라 아동관련 문제에 주요이슈로 다뤄지고 있고 아동기의 학대의 영향은 생애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므로 아동학대의 영향요인을 종단적으로 발표자료는 매우 시의 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경험을 유형화와 더불어 영향을 주는 부모요인을 함께 탐색함으로써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개입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해 부족하지만 몇 가지 첨언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기에서 청소년 전환기로 이르는 시기에 대한 아동학대경험의 특성을 밝힌 연구자의 연구결과에서 잠재계층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 신체학대의 경우, 초등1패널은 주의집중, 공격성 등의 외현화 행동이 초등4패널은 사회적위축, 우울의 내현화 행동으로의 변화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자의 분석과 함의가 설명된다면 연구의 의미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방임학대의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결과 선행연구에서는 아동기에 증가하다가 점차감소하는 경향을 갖는다고 제시된 반면, 연구자의 연구결과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은 증가형'이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자도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요구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자로서 의견과 분석을 위한 제안을 주신다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아동학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탐색에 있어 시간변화의 영향과 더불어 각 요인들의 누적적 영향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가 살핀 부모요인 각각의 영향력 뿐 아니라 각각 요인이 누적되었을 때의 아동학대 경험에 대한 변화를 탐색한다면 아동학대 영향 요인을 보다 실증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연구자께서도 서론에서 밝혔듯이 학대의 예방적 접근을 위한 생태학적 관점이 고려된 연구가 필요함에 적극 동의하며 연구에서 다룬 아동과 부모요인 외에 지역사회환경과 제도적 환경에 대한 시간변화와 요인 간 누적적 영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될 때 또래관계 등 발달과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 차이를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학대개입과 예방을 위한 종단적 개입의 필요성과 다각적 개입의 실증적 함의를 살펴볼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연구자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리며 연구자께서 제시하신 논의를 통해 추후연구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관심분야에 대한 다른 시각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여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 문 헌

통계청 (2015).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과보호 양육, 자아 탄력성 및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안권순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오늘날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변화,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 등으로 인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과보호 양육, 자아 탄력성 및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통하여 발표 해 주신 김원영, 김경식 두 분의 발제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발표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오늘의 발표가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변화와 바람직한 정책으로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이에 토론자는 ‘과보호 양육, 자아 탄력성 및 사회적 위축이 청소년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첨언 하면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사회는 자녀 출산을 감소와 핵가족화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그에 반해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은 위험한 수준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과보호적으로 느끼고 있는 청소년은 자아탄력성이 낮고 우울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에 공감하면서 과보호 양육의 형태는 첫째, ‘과잉기대’로 한국의 특수한 현상 중 하나인 부모의 과잉 교육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자녀의 능력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것이다. 둘째, ‘과잉간섭’은 부모가 자신과 자녀를 동일하게 생각하여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고려하지 않은 유형으로,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결국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투사적 과보호’는 부모가 느끼는 불안이 자녀에게 투사되어,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과보호의 하위요소를 의미한다. 넷째, ‘자녀분리불안’은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지나친 애정을 말하며, 부모의 지나친 애정으로 인해 자녀를 아이 다루듯이 하는 과보호의 유형을 의미한다.

발제자는 자아탄력성이 과보호양육의 영향을 받아 낮아지고, 여학생들에게 있어 사회적 위축을 가져와 우울로 이어진다는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수용의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의 함양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아탄력성이란 상황적 요구에 알맞게 융통성 있는 행동과 문제해결책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며, 특히 변화의 속도가 급격한 현시대에서는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적응하기 위한 특성으로써 자아탄력성을 규정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즉,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때문에 위험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불안하지만 이겨내는 전략으로써 자신을 변화시킬 것인지, 혹은 적응체제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능력을 자아탄력성이라 보고 있다(강창실, 2008). 또한 자아가 탄력적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긴장, 인내의 수준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낮은 상황에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대해 유

연하게 반응함으로써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는 반면, 자아가 경직된 사람은 조절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낮은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응의 융통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 한다(Block and Block, 1980; Block and Kremen, 1996)고 하였다.

또한 발제자는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자기조절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즉 자신의 노력으로 내외부적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청소년기에 심리사회적인 부적응을 겪게 되면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성인의 반사회적 행동, 우울, 대인관계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혜경, 2007). 아울러 사회적 위축은 이전에 경험했던 두려움이나 긴장과 같은 원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Rubin and Coplan, 2004). 또한 Kaufman과 Cicchetti(1989)는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에 높은 수준의 학대가 동반될 때 자녀들의 위축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들이 새롭거나 낮은 상황에 처했을 때 긴장하거나 위축되어 갈등을 해결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한다(Nelson et al., 2005; Rubin et al., 2014).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또래와의 상호 작용이 부족하고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낸다(Rubin et al., 2009). 아울러 부모의 지나친 관심 및 보호는 자녀에게는 과도한 간섭과 통제로 인식되며, 자녀들은 발달단계에서 경험해야 되는 일체의 행위를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어 사회화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자녀들에게 불안과 우울 등 자녀의 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격성이나 비행 같은 외재적인 문제도 겪게 만든다(Parker, 1979).

따라서 청소년 우울과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심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함에 있어 남·녀 학생의 특징에 맞게 적절히 계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발제자의 연구결과에 동감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과 같은 심리적 부분에 대한 긍정적 방향 모색에 있어 청소년이 자아탄력성과 같은 정신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능력의 향상과 함께 과보호양육이라는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대한 적극적 대책과 방향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데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는 발제자의 연구결과에 공감하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창실(2008),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2007),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 지지 및 임파워먼트와 심리사회적 적응,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 Block, J. h. & Block. J(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 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s.), *Minnesota symposia and child psychology*. 13:39-101. Hillsdale, NJ: Erlbaum.
- Rubin, K. H., & Coplan, R. J(2004), Paying Attention to and Not Neglecting Social Withdrawal and Social Isolation", 『Merrill - Palmer Quarterly』, 50(4).

- Kaufman, J., & Cicchetti, D.(1989), Effects of maltreatment on school-age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ssessments in a day-camp set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5(4).
- Nelson, L. J., Rubin, K. H., & Fox, N. A.(2005), Social withdrawal, observed peer acceptance, and the development of self-perceptions in children ages 4 to 7 yea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0(2).
- Rubin, K. H., & Barstead, M. G.,(2014), Gender Differences in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ithdrawal: A Commentary, *Sex roles*, 70(7-8).
- Parker,J.G(1979). Parental characteristics in relation to depressive disorder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아동의 가정 및 학교 내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의 자기회귀교차지연효과 검증』에 대한 토론문

성미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교수)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가정과 학교 내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여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아동의 삶을 보다 근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을 변수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큰 논문입니다.

이 두 가지 변수 간 인과관계를 밝히면서 보다 긍정적인 맥락에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높습니다. 특히 아동의 삶에 중요한 미시체계임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기 쉬운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을 중요한 변수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가 큼니다. 또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이용하여 종단적으로 두 변수 간 상호적 인과효과를 분석하고, 인과 방향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가 높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토론자는 본 연구와 관련해서 연구자에게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적 자본 변수 차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구자들은 사회적 자본이 관계적, 구조적, 인지적 차원으로 구분된다고 언급한 뒤, 아무런 배경 설명 없이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차원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 차원 중 왜 관계적 차원만 초점을 두는지,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어떤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높일 수 있는지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척도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회적 자본이나 주관적 안녕감이 유용한 변수이나 구체적으로 척도의 하위영역을 구성할 때는 학자마다 의견이 상이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 내 사회자본의 경우 보호자의 양육 변수 중 방임이나 학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학교 내 사회자본의 경우 학교적응 척도 중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에 관련된 문항 중 일부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척도는 주관적 안녕감의 경우 생활만족과 긍정적·부정적 정서로 구성된다고 본문 중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 척도만 사용하였습니다. 토론자의 의견은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을 부모와의 관계로 본다면,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 태도 중 방임이나 학대 정도가 낮을수록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가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애정이나 합리적 설명 관련 문항을 사용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가정 내 사회적 자본 변수에 더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을 설명하는 문항으로 또래 애착 영역 중 신뢰 관련 문항(예: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등)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적응 척도 중 교우관계와 교사관계 중 일부 문항만 선정

한 배경도 궁금합니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변수명을 삶의 만족도로 선정하지 않은 배경도 궁금합니다.

셋째,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은 서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반대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 상황(예: 교우관계, 특목고 입시 등)과 연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이나 아동의 학교생활 관련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할 때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 고 문 헌

통계청 (2015).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양상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시간효과 연구』에 대한 토론문

전경숙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른 학교적응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발달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영향력을 미치는지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학교적응의 발달과정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같은 시점에 영향력(동시효과)을 지닐 뿐만 아니라, 현 시점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다음 시점의 학교적응에 영향력(지연효과)을 지닌다는 연구결과는 학교폭력 대책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의 변화패턴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적응수준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일부 연구결과와 달리, 중2 시점을 기준으로 증가하였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연령이 높아진다고 해서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학교적응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중3 시기에는 동시효과, 중2 시기에는 지연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는 높은 학문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 중2~고2 아동청소년 패널자료를 활용, 청소년기 학교적응의 변화와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시간효과 분석을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점도 연구목적 달성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문제 설정,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 도출 등 전체 연구수행 과정에 동의하는 바이나 연구자가 제한점으로 밝힌 바와 같이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향후 후속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토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경험의 유무로만 측정하여 경험의 정도에 대한 차별적인 학교적응 수준을 파악하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차이도 고려되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심층적인 분석과 그에 따른 차별적 개입방법이 제시되길 바란다.

둘째, 중학교 3학년 시기엔 동시효과가 나타나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지연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흥미로운 연구결과이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교가 달라짐에 따라 학교적응에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나아가 고등학교 시기에 급격하게 감소된 학교폭력 발생빈도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는 논리이다. 나아가 학교적응의 변화양상이 중2 시점을 기준으로 증가하였다가 어느 시점부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감소하는 이유는 학교폭력 요인 보다는 학업과 입시 스트레스 관련 요인일 것이란 예측에서 자유학기제 및 다양한 체험활동과 진로·직업 활동을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 역시 현재 중학생을 중점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며, 다른 간접적인 경로인 매개 및 조절변수가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나 친구의 지지 등 다양한 보호요인을 입증한 선행 연구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자료로부터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나 교사의 지지 관련 문항을 본 연구에서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직접 입증하였더라면 결과해석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을 것이란 판단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끝으로 학교폭력 피해경험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보호요인 중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할 때,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형성 및 가정의 순기능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의 지지체계 구축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여성가족부의 서비스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관련 인프라의 연계·협력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대한 토론문

이예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초기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자료를 활용해 학교폭력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본 연구는 매우 시기 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을 분리하여 분석한 점은 하나의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함으로써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진의 진지한 고민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한 가정과 학교 환경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점은, 생태학적 관점에 입각한 패널 자료의 장점을 잘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몇 가지 작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연구의 제목은 가해와 피해 경험을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 요인을 탐색하고, 이들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논의/제언을 한 것에 비해 연구의 장점을 드러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의 특징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제목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는 다각적으로 학교 현장과 가정의 영향력을 살펴 학교폭력 예방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 결과의 단순한 요약은 넘어 이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 여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점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둘째, 연구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왜 6학년 자료를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빠른 성장과 변화를 보이는 요즘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1학년부서의 누적 자료가 있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대상자 선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보다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석 자료를 명기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수집 자료와 분석 자료의 사례수를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진이 주요 변수로 활용한 학교폭력 가해/피해 경험의 유무와 빈도의 기술통계를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정확한 연구 결과 이해 및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피해를 일방적으로 경험하는 경우와 동시적으로 경험하는 경우의 영향 요인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대상을 설정하고 모형을 정교화 하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려가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일시적인 발생도 중요하지만 누적적 가해/피해자가 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연구를 발전시키실 때에는 종단자료의 장점을 반영해 보신다면 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자녀 양육의 주된 역할을 어머니가 담당하는 비중이 높은 현실을 생각할 때 아버지 변인을 사용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모 모두를 포함하기 어렵다면, 어머니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넷째, 학교폭력을 나타내는 다양한 용어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유형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자료 활용으로 인한 한계일 수 있지만,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라 영향 요인 또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고려해 학교 폭력의 가해/피해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형에 따른 분류를 해 보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시되어 있는 학교폭력의 내용은 여학생들에 의해 주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진 은밀한 따돌림보다 조금 더 외현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의 논의가 이러한 분석 문항의 내용을 조금 더 고려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소소하게 연구모형에 각 변수의 의미 값 해석에 대한 설명의 누락,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여부가 누락된 점과 연구 결과 해석시의 소수점 표기 수준 통일, 본문 내 출처의 명확한 표기 등에 대한 부분이 수정된다면 더욱 완성도 높은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연구 학교폭력 대한 가해/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본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연구의 진행에 각 변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증명을 넘어 왜 그러한 관련성을 보였는지, 그래서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하며 토론문을 마칩니다.

『중등학교 졸업예정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경희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상기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교 졸업예정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및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진로정체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이 매개변수인지가 모호하다. 저자가 5p에서 언급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진로정체감에 대한 학교생활적응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고 오히려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발달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어 오히려 진로정체감이 매개변수일 가능성이 더 높다. 모델을 다시 설정하여 분석하기를 권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상기변인의 매개효과 검증보다는 이 자료가 종단적 자료임을 감안하여 학교 생활 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정체감의 발달이나 진행과정을 살펴보는 분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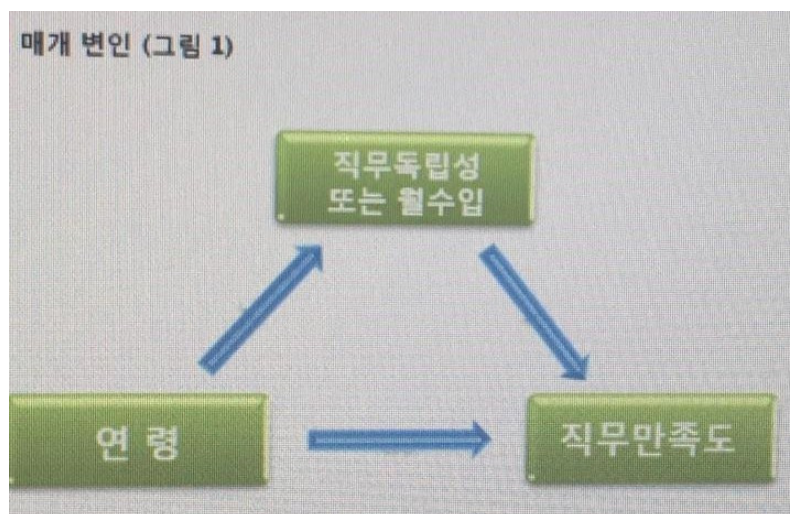


그림 1. 매개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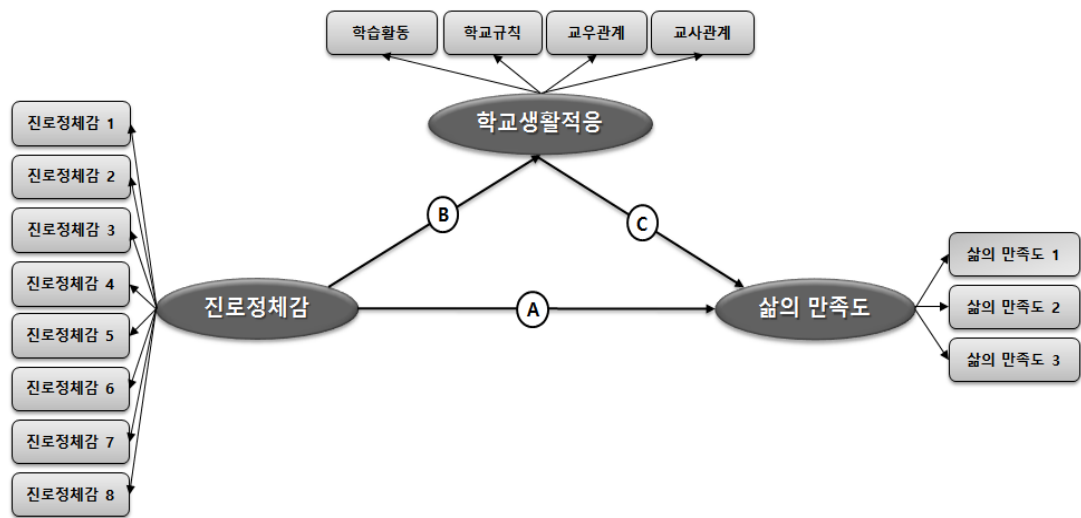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참 고 문 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atistics7&logNo=140136351030>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검증』에 대한 토론문

임선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조교수)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 간의 상호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 중 학교 생활과 관련된 요인이 핵심적인 요인임을 보여주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학교 밖의 요인에서 찾기보다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었다는 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본 연구는 학교적응과 삶 만족도의 상호관계를 밝히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그 분석 과정과 결과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잘못 해석되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구대상에서 각 차수별 샘플수를 기술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아울러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결측치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기술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본 연구는 각 차수에서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각 차수별 신뢰도를 기술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결과〉부분에서 학교적응¹에서 학교적응³의 자기회귀계수값이 왜 낮게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최종모형의 구조계수 추정치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습니다. 연구자는 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모형을 혼동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자기회귀교차모형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연된 자기회귀계수가 안정되게 유지되는지와 지연된 교차계수가 교차 변수간의 영향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해석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논의〉부분에서 학교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값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주요하겠지만, 반대로 삶의 만족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통계적으로 의미 없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삶의 만족과 학교적응의 관계가 선행연구와 달리 왜 상호 긍정적 관계를 안정되게 나타내지 않는지를 논의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 고 문 헌

통계청 (2015).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고등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대한 토론문

이경아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연구는 2013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2015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방과 후 생활시간의 패턴을 유형화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잠재집단을 파악한 후, 각 잠재집단별로 부모 관련 변수와 삶의 만족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그 동안 청소년의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시간 사용에 따라 집단을 세분화하여 수행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시간의 특성을 세밀하게 밝히는 일은 정책당국이 방과 후 청소년 활동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분석 방법과 분석 결과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면서 토론자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결측치 처리

이 연구는 중1 코호트 표본 2,351명 중 두 시점에 대하여 방과 후 생활시간과 관련된 결측 사례를 제외한 1,52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listwise를 선택한 결과 무려 35% 가량의 표본이 유실되었습니다. 종단연구의 특성상 결측 자체가 어떤 특정한 이유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할 때, 결측치를 대체하는 다른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분석 방법

잠재집단 간의 즐거움, 걱정거리, 행복과 관련된 평균 삶의 만족도 점수 차이 검증에서 집단 간 차이는 미미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단일 변수로 집단 간 차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3개의 변수를 하나의 요인으로 분석한다면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고려할만한 다른 변수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학업성취도 관련 변수로 분석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3. 한계점

연구자께서 결론 말미에 제시한 연구의 한계점이 토론자가 원고를 읽으면서 생각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특히 다른 코호트와의 다각적인 비교 분석과 함께 각 코호트의 잠재전이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 LTA) 결과를 함께 해석해 본다면 결과에 대한 풍성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변수의 측정 시기별 해당 학교급의 중점 정책 - 예를 들어, 고입정책 이나 대입정책 - 등이 학생들의 학교 바깥 생활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종단적으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분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재학하는 학교의 고교유형이 잠재집단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연구진께서 연구논문에 제시해주신 내용을 충분히 보완한다면 더욱 흥미있고 가치로운 연구결과가 도출되리라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고민한 연구자들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토론자의 부족한 관점으로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시간과 이를 결정짓는 관련 특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참 고 문 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제1~6차 조사코드북**.

『초·중등 교육기간 동안 우리나라 학생들의 주관적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 탐색』에 대한 토론문

김진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초·중등교육을 통해 지각한 주관적 학업성취도의 변화추이가 어떠한지를 분석한 연구로서, 공교육제도 내에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적 측면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교육 현장에서 핵심 교과목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서 청소년들이 느끼고 있는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어떠한 변화추세를 보이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장궤적이 우리나라 학교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것은 시사점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구에서 활용된 두 개의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s)역시 연구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분석방법이라 생각된다. 즉 다집단 잠재성장모형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초1, 초4, 중1패널 등 3개의 서로 다른 집단간의 성장궤적과 모수추정치가 동등한지를 분석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코호트 순차적 잠재성장모형(cohort-sequential latent growth model)은 초1, 초4, 중1패널 등 3개의 코호트의 단기 종단데이터를 연결하여 근사적 장기 종단연구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논문에서는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발견되고 있다. 토론자의 자격으로 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몇 가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론부분에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물론 이 연구는 논문제목에서 이미 언급된 것처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교육 기간동안에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성장궤적을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교육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연구목적은 2번이나 반복해서 제시하기 보다는 연구의 필요성과 이 연구의 의의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왜 제시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주관적 학업성취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관적 학업성취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론적 배경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이후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단편적 의미로 주관적 학업성취도를 사용하고자 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문장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학업성취도와 동일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사한 개념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그리고 표1을 보면 혼란은 더더욱 가중된다. 왜냐하면 표1에 제시된 학업적 효능감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적 효능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주관적 학업성취도”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주관적 학업성취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개념적으로 그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연구방법에서 조사대상, 측정도구, 자료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연구방법에서 ‘다집단 잠재성장모형’과 ‘코호트 순차적 잠재성장모형’이 어떤 방법인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국어/수학/영어 교과와 주관적 학업성취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다는 전통적인 연구논문의 틀 즉, 조사대상과 측정도구, 그리고 자료분석 방법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다집단 잠재성장모형 분석과정에서 CFI, TLI, SRMR, RMSEA 등 모형적합도 판단지수를 통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각각의 적합도 판단지수 별로 “적합” 판정기준을 제시하면, 그 기준을 토대로 적합 혹은 부적합을 명쾌하게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적합도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부적합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진술문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표4>에 대한 설명에서는 “국어성취도 측정 통계모형이 자료에 부적합하지는 않다”고 언급한 반면, <표9>에서는 “국어교과는 성장궤적이 동일한 모형은 적합도 검정값의 결과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별 성장궤적 모형의 동질성을 검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집단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결과는 정확하게 해석되어야만 한다. 만약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적용했다면 해당 내용들은 전면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을 신뢰할 수 있도록 보다 과학적이고 엄밀한 방식으로의 해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주관적 학업성취도의 성장궤적을 추적한 결과가 학교교육에 주는 시사점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서론에서 주관적 학업성취도의 성장궤적을 추적하고, 그 추이가 학교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론부분에서는 김정환(2010)의 연구와 허승희, 이미숙(2012)의 연구결과에 대한 언급만 하고 있을 뿐, 연구결과가 학교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전혀 도출이 안되고 있다. 따라서 결론부분에서 이 연구결과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추가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논문에서 비문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수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론에서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수집하는 주관적 학업성취도의 변화추이를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긍정적인 교과태도를 갖고 학업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혹은 코호트 순차적 잠재성장 모형분석 결과에서 “관측평균 및 추정평균이 유사하며 인접한 코호트의 평균이 비슷하여 이는 코호트가 같은 모집단에서 생겨났다는 동질집단의 가정을 지지할 수 있으며, ...”등 비문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비인지적 학업성취로서 자존감과 행복감의 인과관계 분석』에 대한 토론문

유한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학교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며,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아성취를 목적으로 한다. 학교 교육의 목적이 사회적 측면이던 개인적 측면이던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특히 학교 교육 단계에서는 성장과 발달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이끄는 것이 중요한 교육의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서는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발달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 있으며, 이 세부분이 조화롭게 구성되는 전인적 인간의 형성을 학교교육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발표문에서는 정의적 측면의 발달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청소년의 발달단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념은 오랫동안 교육학과 심리학에서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다루어 왔고, 정의적 발달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행복감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이 논문이 갖는 중요한 시사점은 자존감과 행복감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인과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가를 모형을 통해 밝혀보려고 했다는 점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존감이 행복감의 형성에 지속적으로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 논문의 연구결과와는 별개로 이 논문에 대한 몇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인지적 성취에 대비하여 비인지적 성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교육학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정의적 발달 또는 성취라는 용어를 굳이 비인지적 성취라는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둘째, 모형에서 다집단 분석을 위해 측정동일성 검정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성별에 따라 구인의 구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의 관계 형성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이 연구의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모형에서 자존감과 행복감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

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요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상정하기 어렵다면 오히려 동일 시점의 영향(중1 자존감→중1 행복감)을 추정하지 말고 시계열 상의 효과만을 추정하는 것이 모형을 보다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하지만 성별 이외의 요인 예를 들면 인지적 성취 수준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존감과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성적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변수에 포함하거나, 집단별로 분리하여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학교교육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지지하여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 논문은 자존감과 행복감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청소년기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토론문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전 생애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 할 수 있는 청소년기의 핵심적 발달 과업인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자아정체감의 변화양상에 따른 진로정체감의 변화 양상의 관계를 시간의 추이에 따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 중1 패널자료의 3차(중3), 5차(고2), 6차년도(고3)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관계에 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이 제공되었다고 판단되며,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 「Ⅴ. 논의 및 결론」부분에 제시한 내용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석에 유의를 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중3에서 고2, 고3시기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의 변화추이를 확인한 결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자아정체감과 진로정체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는데, 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의 <표 1>에 따르면, 자아정체감 수준은 중학교시기보다는 고등학교 시기에서 높았으나 고3시기의 정체감 수준은 고2시기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미하지만 고3 시기에서의 자아정체감 저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진로정체감의 경우 공분산이 부적부호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에 대해 진로정체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진로정체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는데, 초기 진로정체감이 높을 경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반면 초기 진로정체감이 낮을 경우 더 큰 변화가 일어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보영 외, 2015).

2.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모형에 함께 포함시켜 상황 맥락을 고려한 현실 지향적인 연구로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특히 자아정체감의 발달이 진로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포함시켜 청소년 및 교육 정책에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끝.

참 고 문 헌

김보영, 이지혜, 이수정, 김혜자, 이상민(2015). 청소년의 비공식낙인과 공격성의 종단적 관계: 다변량 잠재성 장모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제21권 제1호, p. 286.

『청소년의 미래지향목표가 공동체의식과 진로정체감의 중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문

박선영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이 논문은 미래지향목표, 공동체의식,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창의적이고 시의성 있는 주제의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미래지향목표와 공동체의식과의 관계는 공동체의식이 나 시민성 함양을 위하여 미래지향목표가 청소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으로 향후 시민교육의 중요한 방법론적 관점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입니다. 아래의 몇 가지 질문과 의견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지향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논문은 별도로 이론적 배경부분을 구성하지 않고 있어서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이러한 개념을 처음 접하는 독자들에게는 다소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내재적 미래지향목표와 외재적 미래지향목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동체의식과 진로정체감과 관련지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재적, 그리고 외재적 미래지향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차이와 이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논의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자에게 드리는 질문은 과연 미래지향목표, 그것도 청소년에게 있어 미래지향목표, 공동체 의식, 진로정체감이란 무엇이며 이 연구에서의 조작적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로, 미래지향목표와 공동체의식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미래지향목표도 높다는 것인지 궁금하며, 미래지향목표를 내재적, 외재적으로 나누어 설명하셨는데, 내재적 미래지향목표에서 지역사회지향과 관계지향이라는 것이 어떤 점에서 내재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셋째로 공동체의식의 초기값이 낮았던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진다고 하셨는데 이는 미래지향목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공동체의식이 높아지는 또는 함양되는 또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미래지향목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공동체의식과 진로정체감간의 관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진로정체감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향상되는 것은, 입시와 진학을 앞두고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아진다는 것인지, 그리고 진로정체감 중에서

도 어떤 진로와 관련한 것이 공동체 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매우 창의적인 주제로 공동체 의식과 진로정체감, 그리고 미래지향목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연구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게 해주신 연구자들에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통계청 (2015).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아동의 BMI 수준에 따른 BMI · 신장 · 체중의 발달적 경향성과 중간 변화율의 차이 및 원인』에 대한 토론문

김동학

(한양대학교 예체능대학 겸임교수)

아동비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위험에 노출되는 아동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들어 아이들의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은 약해졌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며 아동비만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체육학에서도 아동들의 비만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 비만요인과 비만해결에 관한 연구들이다. 길게 나열하지 않아도 비만요인 및 해결은 이미 수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비만문제를 환경론적 요인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성숙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아동비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며,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이해를 돕고자 연구내용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

1. 연구의 이해

본 연구는 성숙론적 관점에서 아동의 BMI 수준에 따른 신장 및 체중의 발달적 중단 변화율의 차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비만 예방을 위한 최적의 시기와 비만 예방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 1) 아동의 비만수준에 따른 BMI, 신장, 체중의 발달적 경향성은 어떠한가?
- 2) 아동의 비만 수준에 따른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부터 전이 시 BMI, 신장, 체중 중단 변화율은 차이가 있는가?
- 3) 아동의 비만 수준에 따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부터 전이 시 BMI, 신장, 체중의 중단 변화율은 차이가 있는가?

2. 연구 결과의 이해

이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고 있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해보면, 첫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의 모든 아동들에게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BMI, 신장, 체중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6학년 전이 시 과체중 아동이 BMI 지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 결과 BMI 지수의 감소를 나타낸 5-6학년 전이 시 아동들의 BMI, 신장, 체중의 종단 변화율을 보면 BMI 변화율은 저체중, 과체중, 정상체중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신장 변화율은 과체중과 정상체중이 저체중에 비해 크게 나타났고, 체중변화율은 저체중과 정상체중이 과체중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신장변화율이 저체중이 정상체중보다 크게 나타났다. 체중은 저체중이 정상체중과 과체중보다 변화율이 높았다.

세 번째 연구문제의 결과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변화율을 살펴보니 BMI는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순으로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신장변화율이 과체중, 정상체중, 저체중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체중은 변화율의 차이가 없었다. 여아의 경우 신장변화율은 저체중이 정상체중과 과체중 보다 높게 나타났고, 체중은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순으로 나타났다.

3. 논의의 이해

본 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논의와 더불어 토론자의 의견을 함께 제시한다. 첫 번째 논의로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BMI 변화를 봤을 때 저체중과 정상체중 아동이 과체중 아동보다 변화율이 커 비만아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꾸준한 중재적 노력이 필요하고, 과체중 아동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보아 중재적 노력보다는 유아기부터 체중을 절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본 결론에 동의하나 저체중과 정상체중 아동의 비만가능성을 제시하기보다는, 저체중 아동은 체중의 증가를 유도하고, 정상체중 아동은 상태 유지, 과체중 아동은 정상체중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두 번째 논의로 5-6학년 전이 시 과체중 아동이 BMI가 낮아져 BMI 수준 조절의 가장 최적기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5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체활동 증가 및 영양소의 고른 섭취를 유도해 그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즉 초등학교 차원에서 고학년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증가하고, 방과 후 체육활동을 활성화하여 남, 여 모두 더 많은 신체활동에 노출 시키고, 영양공급 차원에서 급식에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논의로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BMI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5학년에서부터 과체중, 정상체중, 저체중 순으로 신장이 컸으나, 중학교 3학년에는 모두 평균 신장까지 자라 과체중에서 BMI 변화량이 적게 나타났다. 이는 생리학적 성장론에서 바라봤을 때 성조숙증과도 연관 있을 수 있으며, 2차 성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즉 어린시기에 과체중은 성장하면서 신체조성에 있어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4. 소결

본 연구는 아동비만을 성숙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비만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제시해 주고 있다. 이에 검증 자료로 4학년 2-6차년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그 변화의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다소 아쉬운 점은 연구의 관점에서 라기 보다는 BMI 평가방식에 관한 부분으로 BMI 수준에 대한 분류방법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문제이다. 비만이

라는 것은 단순히 키와 몸무게로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체지방율, 복부지방율, 근육량 등의 다양한 신체조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물론 전반적인 경향성을 제시하기에는 용의하나, 아동 및 청소년의 정책이나 주요 이슈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데이터 및 다양한 사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빈곤과 방임이 아동발달단계별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문

조영일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빈곤과 방임이 아동 및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빈곤, 방임 및 주관적 건강상태 간의 관련성을 방임이 빈곤과 주관적 건강상태 간의 관계에 가지는 매개효과로 모형화 하였다. 특히, 방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회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정책적 및 실천적 함의는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빈곤 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상태 향상은 부모의 방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특히, 발달 단계별로 적합한 사회적 지원을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둘째,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상태에는 부모 방임에 의하여 주요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부모 방임에 대한 예방을 포함하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으로 인하여 본 연구의 논점이나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다. 특히, 방법론적 관점과 이론적인 관점을 구분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변수에서 결측값을 가진 사례를 제공하였다. 즉, 결측의 메카니즘을 missing at completely random으로 가정하고 listwise deletion이라는 방법이 사용되었다(Graham & Coffman, 2012). 이에 반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관계성 및 종단자료임을 감안한다면 결측 메카니즘은 missing at random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listwise deletion이 활용되면 추정된 회귀계수가 편의(biased)될 수 있다(Graham & Coffman, 2012). 특히, 빈곤과 방임의 결측의 변수 자체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 결측 메카니즘에 대한 가정을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 방임의 척도에 대한 질(quality)이 보고되어야 한다. 특히,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보고되어야 한다.

셋째, 통제변수가 포함된 경우에도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매개효과 검증이 가능하다. 특히, 결측치의 처리 방식이나 측정모형의 가정 등과 같은 장점을 가진 구조방정식 모형의 활용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넷째, 변수의 정의가 부정확하다. 예를 들어, ‘한부모’ vs ‘비한부모’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게 기술되었다.

다섯째, <표 3>에서 기술된 변수 간의 상관계수의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Cohen (1988)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상관이 .10 보다 작으면 크기가 매우 작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표 3>에서 제시된 상관을 해석하는 것이 의미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결과변수로 설정하였다.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상태는 주관적인 건강상태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건강상태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가정에 기초한다면 타인과의 (객관적인) 비교에는 인지 능력 및 발달이 주요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변수들 간의 횡단적인 관계를 검증하였다. 패널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면, 본 연구의 변수들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참 고 문 헌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Graham, J. W., & Coffman, D. L. (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missing data. Handbook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77-295.

『별점회귀모형을 통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탐색』에 대한 토론문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본 연구는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 변수선택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중에 하나인 별점회귀분석방법인 lasso 변수축소방법을 통해 KCYPS 자료의 다양한 변수들 중에서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수선택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연구들은 선행연구나 연구자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택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계학 등에서 활용되는 변수축소방법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늘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들이 교육학분야나 사회과학분야 적용되고 이용되는 것은 연구자들에게 즐거운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이런 면에서 연구자들이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길 기대한다.

토론자의 입장에서 몇가지를 생각해보거나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lasso 변수축소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lasso 변수축소방법이 가질 수 있는 단점이나 한계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별점모수를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실제 자료분석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수많은 변수와 특정 종속변수와의 관계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순히 그냥 의미있는 변수로 추출되었다는 점 때문에 회귀모형을 설정하고 관련 분석을 진행한다는 것이 지니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표1에서 보면, 대부분 기존의 선행연구와 관련되어 있는 독립변수들이 추출되었지만, 특정 변수들은 과연 이 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와 무스관련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저자가 지적한 것과 같이 비등교일 공부시간이 적을수록, 여가시간과 체육시간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는 단순히 시간과 삶의 만족도만 살펴봤을때의 결과로 보이며, 관련 시간을 구간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또다른 결과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즉 적절한 시간 활용인 경우에 삶의 만족도가 높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단순히 시간을 연속적인 개념으로 파악했을 때 lasso 분석결과가 연구자에게 잘못된 결과를 유도해서 특정변수를 최종 회귀분석 모델에 적용하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둘째, 변수축소방법을 통해서 여기처럼 15개 변수가 아닌 50여개의 변수가 의미있게 나온다면 실제 이렇게 많은 변수 또는 서로 이질적인 변수를 포함해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lasso가 지닌 유용성 또는 적절성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

의 자료처리방식을 보면 여러 가지로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치 30%이상 비율의 변수를 제거하거나 listwise방법으로 사례수를 응답자 제한하거나 독립변수 설정의 방식의 차이나 반응변수인 삶의 만족도 변수를 3개 변수를 합한 후에 원 설문의 의미를 지닌 평균값이 아닌 2보다 작은 값을 1로 설정하는 방식 등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재와 같이 나온 결과가 실제 자료처리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결과가 나올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단순한 기술보다는 해당 연구가 지니는 의미와 특정 변수들의 영향력을 좀더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lasso 변수축소방법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파악한 것은 의미가 있다. 앞으로 연구자가 단순히 여러 자료를 활용한 부분에 변수축소방법을 응용하는 부분을 넘어서, 다양한 조건에서 lasso를 포함한 기존의 분석방법과 새롭게 개선된 분석방법 등의 적합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을 많이 했으면 한다.

『청소년의 알파(Alpha) 성격과 정서행동문제의 종단적 유형의 관계』에 대한 토론편

이미리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엘리트 집단의 특성을 의미하는 알파 성격이 개인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특성인지 아닌지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알파 성격이 성공이나 성취 관련 측면에서 건강한 특성인 것으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알파 성격이 정서행동적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한다. 또한 이러한 특성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보고하기는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관점에서 알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정서행동문제의 발달 양상을 중3, 고1, 고3의 세 시점에 걸쳐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알파 성격의 정서행동문제 발달 양상을 네가지 유형(증가위험집단, 증가보통집단, 저위험집단, 급감소집단)으로 제시하고 알파 성격을 가진 청소년들은 정서행동 문제의 증가 집단에 속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보고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지 못한 의미 있는 정보를 준다. 본 연구결과는 경쟁, 성취, 업적 위주의 사회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청소년들이 어떤 심리적 보상을 치루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연구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결과 해석상 다음의 두 가지 의문점으로 인해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자의 주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첫째, 논의에서 우리나라 알파 성격 청소년 집단의 50% 이상이 정서행동적 문제(공격성, 신체화, 사회적 위축, 우울) 증가 특성을 보이므로 정서행동문제 수준의 심각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알파 성격 집단과 일반 성적 우수 집단 간 비교결과에 의하면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있어서 알파 성격 집단이 일반 성적 우수 집단에 비해서 증가위험 집단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알파 성격 집단의 정서행동 문제는 여학생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알파 성격 집단과 성적 우수 집단의 비교표에 의하면 남학생의 경우는 정서행동 문제 유형별(공격성, 신체화, 사회적 위축, 우울) 사례의 비율에 있어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1). 이는 정서행동 문제 증가 특성을 보이는 것이 알파 성격 집단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청소년기 연령 증가에 따른 발달 양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더구나 여학생 알파 성격 집단과 성적 우수 집단과의 비교 결과에 의하면(표10) 네 가지 모든 정서행동 문제 유형에 있어서 알파 성격 집단이 일반 성적 우수 집단에 비해서 정서행동 문제의 증가 집단(증가위험과 증가보통)의 비율이 저위험이나 급감소 집단보다 낮았다. 다시 말해서 알파 성격 집단에 비해 일반 성적 우수 집단의 정서

행동 문제의 증가 집단 비율이 저위험이나 급감소 집단의 비율보다 높았다.

또한 정서행동 문제 급감소 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의 알파 성격 집단과 일반 성적 우수 집단의 차이가 증가위험 집단 비율의 차이에 비해 더 컸다. 예를 들어, 정서행동 문제 유형 중에서 알파 성격 집단의 정서행동 문제 유형 중 가장 취약한 유형인 사회적 위축의 경우, 증가위험 집단의 비율이 알파 성격 집단은 25.2%, 성적 우수 집단은 23.9%로 약 1% 비율의 차이로 알파 성격 집단이 높으나, 급감소 집단의 비율은 알파 성격 집단이 16.3%, 성적 우수 집단은 5%로 약 11% 비율의 차이로 알파 성격 집단이 높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결과는 알파 성격 집단의 정서행동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알파 성격이 아닌 비교집단도(성적 우수 집단) 보이는 특성이며 어떤 점에서는 알파 성격 집단이 정서행동 문제에 있어서 덜 부정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논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알파 성격 집단의 정서행동 문제가 일반 집단에 비해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둘째, 첫째와 연결된 사항인데 알파 성격 집단의 비교 집단으로 선정된 성적 우수 집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은 유사하나 다른 기준(리더역할, 과외활동 참여, 자기 신뢰, 성취위욕)에서 차별적인 집단을 성적 우수 집단, 즉,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다른 기준에 있어서는 알파 성격 집단에 비해 수준이 낮은 집단일 것으로 추측은 된다. 그러나 다른 기준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알파 성격 집단이 상대적으로 어떤 비교집단에 비해 정서행동문제가 차이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알파 성격 집단을 성적, 리더역할, 과외활동 참여, 성취의욕, 자기 신뢰의 5가지 기준에 의해 선정하였는데 비교 집단으로 성적이 유사한 수준의 집단을 선정한 이유 즉, 비교집단 선정에 있어서 성적 변인을 통제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의하면 성적을 포함한 5가지 기준이 모두 정서행동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진술이 보완된다면 본 연구는 업적과 성취위주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은 어떤 모습이며 이를 위해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고 사료된다.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청소년의 확장된 공동체에 대한 이타적 목표의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토론문

김태균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부교수)

현대사회가 나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동물이라는 관점에서 이기적인 사회로의 변화는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이타적 목표의식을 갖는 청소년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타적 목표의식에 미치는 효과의 연구는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대를 변화시키는 밑거름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의미 있는 연구를 발표하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이타적 목표의식 집단 구분에서 현재는 집단1(그렇지 않다), 집단2(그런 편이다), 집단3(매우 그렇다)으로 구분하고 있다. 집단1, 집단2, 집단3이 갖는 의미가 있을까? 라는 것이다. 특히 집단2와 집단3이 갖는 의미는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차라리 이타적 목표의식이 없는 집단과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더욱이 연구자가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작다는 이유로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하나의 변수로 보고, 응답비율이 높다고 하여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구분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것 같다.

둘째, 연구자가 이론적 배경에 밝힌 것과 같이 부모-자녀관계, 교우관계, 교사-학생관계, 지역사회관계 등은 사회관계를 직접적으로 체험 하는 것과 이타적 목표의식의 관계가 관련이 있는가? 아니 관련이 있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든다. 또한 건전한 민주시민 함양이 이타적 목표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론적 배경의 대부분이 사회성, 공동체의식 등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더 혼란스러운 듯 하다. 이타적 목표의식이 사회성과 공동체의식에 해당되는가?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론적 배경에서 명확한 관련성을 밝히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결과 중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이타적 태도로 전이되지 않고, 부모의 합리적 설명은 타인 및 환경에 대한 이타적 목표의식에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의 주장 처럼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 생각된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에 대한 궁금증이 발생한다. 매우 흥미로운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결과와 흥미 있는 결과 등이 도출되어 있어 훌륭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연구자의 제언처럼 청소년교육이 건전한 민주시민 함양이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긍정적, 민주적,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희망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수용성의 발달 양상과 공동체의식의 변화에 대한 중단 연구』에 대한 토론문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적 변화에서 잠재 계층이 있는 지 검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후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적 변화양상을 통해 도출된 잠재계층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변화 양상을 중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예전에도 본 패널 학술대회에서 공동체의식과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를 다룬 적 있어 관심있게 살펴보게 되었는데, 대상 중심적 접근과 적용을 하여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발달양상에 따라 어떻게 공동체의식이 변화하는지를 보았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였다.

특히, 본 연구 주제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이며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도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정교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 점에서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최신 분석방법을 사용한 뜻 깊은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 서술과 가독성을 높여 연구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서론을 보면 필요성과 목적을 다문화수용성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다집단성장모형의 수행이유,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요인들 순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약간 산만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서론은 논리적 근거에 충실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좀 더 간결하면서 명료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으며 방법론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언급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따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앞의 서론 부분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이론적 배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졌으면 한다. 서론의 지면 상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다문화수용성과 공동체의식의 관계, 또한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논의들을 좀 더 상세히 다루었으면 한다. 사실, 다문화수용성과 공동체의식은 서로 연관이 있으면서도 배타적인 주제일 수 있으므로 좀 더 심도 있는 선행연구와 논의를 통해 주제의 이해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론과 이론적 배경에서 다문화수용성의 예측요인으로서 해외방문경험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활용하였는데, 두 영향요인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했으면 한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중 방임의 항목 내용은 실제로 방임하지 않고 보살피는 내용이라 다문화수용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의 양육태도 중 학대의 내용은 어떻게 다문화수용성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해외방문경험도 다문화수용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경험에 따라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

런 변인의 적절성에 의문이 든다. 오히려 다문화수용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긍정적 양육태도나 개인특성 중 성격의 요인 등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연구방법은 성장혼합모형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고급분석은 독자들에게는 익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친절한 분석 과정과 설명이 추가된다면 좋을 것이다. 즉, 본 연구가 발달수준에 따른 잠재계층을 추정하고 이들과 관심 변인간의 관계들을 분석하여 하위 잠재계층의 유형을 보여주고자 하였는데, 모형 그림만 제시되어 있고 이러한 모형의 변화과정에 대한 서술이 너무 간략하여 읽으면서 아쉬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결과 서술에 선형모형의 형태로 분석하였다고 하였는데, 다른 모형과의 비교를 통해 선형모형의 선택 과정이 제시되어 있었다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며, 다항로짓 분석 결과 예측요인도 논의에서 변인별로 제시하였듯이 결과에서도 변인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논의 부분은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명료하게 전개했다고 생각이 든다. 물론 부모양육태도 변인은 설명에 약간의 비약이 있어 보이나, 그것은 변인의 한계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논의 중 증가집단이 공동체 의식의 변화에 있어서 초기치와 변화율이 높다는 것을 볼 때 앞으로의 연구나 교육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사회가 성취중심에서 벗어나 과정을 중요시 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더 중시되어야 함을 시사하며 어린시기부터 타인과 문화에 대한 수용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그러한 태도가 공동체 의식에도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본다.

오늘 본인은 토론자로서 이러한 연구와 논의가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며 다문화수용성과 공동체의식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감사한다.

『청소년 체험활동과 공동체의식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토론문

전명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본부장)

「청소년 체험활동과 공동체의식간의 인과관계」의 연구문제는 첫째, 청소년의 체험활동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 셋째, 연구문제3.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공동체의식간의 인과관계 방향은 어떠한가? 등이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논구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4~6차(2013~2015) 조사 자료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첫째, 체험활동 참여율의 변화, 둘째, 중학교 3년간 공동체의식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 셋째, 체험활동시간은 공동체의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의식이 높은 경우 체험활동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상호 종단적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의존적 관계라는 것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인별 체험활동 시간 격차가 커짐을 의미하며 중학생의 체험활동 참여율이 70%대 이하인 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체험활동의 기회 마련이 필요하고, 공동체의식 함양을 주요 활동목표로 하여 체험활동의 수준을 더욱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체험활동 시간과 활동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함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체험활동과 공동체 의식 간의 상관성에 대해 패널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수행한 연구는 기존 수련활동 등 청소년 체험활동에 관한 필요성이나 효과성 등에 대한 논의가 당위적 가치의 추구나 단발적·단기적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 중심(evidence-based)의 연구로 진전시키는 중요한 시도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토론자의 입장에서 갖는 몇 가지 의문과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인 ‘체험활동’과 ‘공동체의식’의 의미와 범주 등이 보다 명확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물론 체험활동과 공동체의식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논의할 수도 있는 용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체험을 “경험, 실제로 해 보는 활동”이라는 수준으로 본다면, 연구자들이 제시한 측정변수들이 체험의 의미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채택한 것인지 아니면 체험활동 중 매우 한정적인 범위에서 공동체 의식과 관련성이 있는 활동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식에 대해 연구자들이 선택한 측정변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 분석한 데 따른 제약일 수 있으나, 연구자의 관점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의 제시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둘째, 연구자들이 제시한 연구결과의 함의 중 “생애 초기 저연령부터 공동체의식을 미리 충분히 함양하면 중학교시기 청소년 체험활동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대변”한다고 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논거나 설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주요 분석 결과의 한 가지가 청소년 “체험활동의 질적인 면과 공동체의식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로, 체험활동만족도와 공동체 의식이 상호작용함을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초기 저연령부터 공동체의식을 미리 충분히 함양하여야 중학교 시기의 체험활동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고 설명한 논거는 잘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체험활동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야 한다는 논지가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의 관점 제시나 상세한 설명을 요망한다. 이는 연구 전반부 이론적 배경에서 “이전의 많은 연구들이 체험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확인이었던 것에 비해 거꾸로 그 역인과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 토론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한 질문일 수도 있다.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미나 필요성, 그 효과성 등에 대해 실증적 연구의 성과가 축적되는 것은 청소년활동의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패널 조사 자료의 활용을 통한 분석으로서 체험활동과 공동체의식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청소년에게 실제로 의미 있는 체험, 청소년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체험은 어떤 것인지, 체험활동의 기대효과와 실행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고 선순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화의 노력이 보다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다문화수용성 결정 요인의 연차별 추이 분석』에 대한 토론문

박옥식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이사장)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의 연차별 추이 분석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해 매우 유용한 연구라 할 수 있겠다. 연구와 발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방향의 지도방안 모색에 도움을 주신 이수경, 이영주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결과들이 청소년정책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다문화인구 현황(안전행정부, 2015)은 다문화가족이 82만명, 다문화가족 자녀가 207,693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문화학생은 82,536명으로 전체 학생 중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초등학생의 경우 2.2%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학생은 2014년 대비 21.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학생 수는 2006년 9,389명(0.1%)에 불과하던 상황에서 9년 사이에 9배 가량 증가하였고, 비중도 14배가 상승하였으며, 초등학생의 비중이 73%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기존의 우리나라 학생 수에 대한 현황(교육부, 2015)은 2014년 대비 166,189명(2.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기존의 우리 청소년과 함께 다문화청소년을 고려한 새로운 방향의 청소년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미 발표자들께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다문화수용성의 영향요인 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본 토론자는 발표자들의 연구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연구결과를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사회화의 국제적 변화추이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여 다문화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평화적이고 조화로운 사회분위기 조성 및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다문화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차이와 다름에 대한 인식, 배려와 존중 등의 다문화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효율적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여 영·유아기

로부터 아동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 따른 연령별, 학교급별 다문화 이해교육 및 시민성 교육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다문화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연구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문화 수용성 예측변인은 초등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어릴때부터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공동체의식 함양, 또래애착, 삶의 만족도 등 다문화수용성 예측변인들의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들에 대한 다문화 관련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은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배움터이며, 부모들로부터 도덕성, 가치관 등이 습득하게 되므로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은 별도로 추진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가 있으므로 다문화수용성 관련 동영상자료 및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수용성 함양은 수동적 교육보다는 능동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청소년 스스로의 동아리활동 경험을 통하여 다문화수용성을 증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동아리활동은 이미 중고·대학생 다문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검증된 사례들이 있으므로 더욱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수용성 함양을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 학교, 가정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효과성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 프로그램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다문화수용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다문화수용성 증진은 다문화청소년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족들의 적극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통해 청소년 및 시민들이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다문화가족들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주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다문화가족들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일곱째, 다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도 EBS를 비롯하여 각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끝으로 다문화는 국제결혼가족,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과 관련한 문화만이 아니라 청소년과 기성세대의 문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화, 여성과 남성의 문화, 소수자와 다수자의 문화 등 매우 폭넓은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포용성있는 자세와 태도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족과 대비되는 기존의 우리 국민들은 다수의 다문화가족임을 인식하고 모두가 다문화가족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상호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조화로운 삶을 통하여 행복한 사회를 열어가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시대를 열어가는 청소년들이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통해 바람직한 다문화적 가치를 정립함으로써 국가와 세계의 평화, 상생, 발전을 이루어가는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5). **교육기본통계**.
- 김동진 외((2013). **다문화복지론**. 공동체
- 안전행정부(2015). **외국인주민현황조사**.
- 장윤수 외(2012). **한국 다문화사회와 교육**. 양서원
- 최충옥 외(2010). **다문화교육의 이해**. 양서원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대한 토론

오승근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학과 교수)

연구자들이 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할수록 다문화청소년들의 적응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문화청소년들을 수용하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16쪽)에 적극 공감한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갖게 되는 것이 다문화사회에서 보다 더 필요한 요건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초등학생의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다문화 수용도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도 양호하며, <표 1>에 다문화 수용도 변인에 관한 선행 연구도 잘 정리되어있다. 또한 분석방법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연구결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한 점, 차이점 등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연구자들의 해석이 뒤따라야 한다. 이 논문의 토론자로서 분석 과정 및 연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성별 문화적 수용도의 차이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별로 다문화 수용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성별 다문화 수용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자들의 해석은 무엇인지가 나타나있지 않다. 이러한 성별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차이가 성별 생물학적으로 다문화 수용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가? 문화적으로 성별로 다문화에 대해 다르게 습득하여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

둘째, ‘친구와 노는 시간’, ‘우호적 친구관계’가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 따르면, ‘친구와 노는 시간’은 다문화수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호적 친구관계’는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상관관계에서도 친구와 노는 시간과 우호적 친구관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볼 때, 초등학생들이 친구와 노는 시간이 많으면 우호적 친구관계 성향이 높을 것이고, 이것이 다문화 수용도에도 동일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이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는 방임적 양육태도는 다문화 수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학대적 양육태도는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이 2가지 문제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만 독립변수로 투입했

는지, 방임적 양육태도 이상으로 학대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수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연구자들이 결론에서 “부모의 잘못된 양육태도와 가치관 변화가 중요하다”(15쪽)라고 주장했는데 다문화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모의 적절한 양육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넷째, ‘원만한 교사관계’와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 모형3(학교생활)에서 원만한 교사관계는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모형4(지역사회)에서는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추론해 보자면, 원만한 교사관계와 지역사회 변인(긍정적 지역사회인식, 공동체 의식수준) 간에 상관관계가 높은 탓이라고 생각된다. 초등학생들에게 교사와의 관계는 지역사회 변인과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다섯째, ‘독서시간’, ‘연간여행경험’, ‘해외방문경험유무’가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는 독서시간의 경우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연간여행경험과 해외방문경험유무는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독서라는 간접체험이 해외여행이라는 직접체험 보다 다문화 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경험이 간접적인 경험보다 다문화 수용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의외의 결과라 판단된다. 초등학교와 같이 어린 시절에는 직접적인 제한된 경험보다 간접적인 경험이 수용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또한 독서시간과 연간여행경험 등도 질적으로 어떤 경험인지가 더 중요한 영향 변인은 아닐까 생각된다.

이 연구가 다문화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을 분석하면서 이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 변인들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제시,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연구자의 입장에서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들이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할 때 이 연구의 의미가 더 부각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 교우관계 및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및 이성교제 경험에 따른 잠재평균과 영향력 차이 검증』에 대한 토론문

김한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청소년기의 이성교제에 따른 자아정체감, 자아탄력성, 학습활동, 교우관계,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해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해보는 것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이해하고 보다 바람직한 교육을 위한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보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기초자료로써 활용되어지는 의미 있는 연구라 판단됩니다.

본 연구에 대하여 부족하지만 몇 가지 질의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론에서 초등학생의 60.8%와 중학생의 53.0%가 이성교제 중이라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수치에 의하면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보다 이성교제의 정도가 높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수치가 이성교제의 범주에 해당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되어진 것인지, 수치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이론적 배경에서 생활만족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활만족도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범위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선정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인식과 학교생활을 선정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셋째, 연구방법의 연구대상 일반적 특성을 살펴봄에 있어서 청소년기의 이성교제 유무에 대한 조사시, 이성교제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는 Ⅱ.이론적 배경에 추가되어야 하는 내용이라 여겨집니다. 본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청소년기의 이성교제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부터 인정되는 것인지, 연구대상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사에 임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 의견으로 토론을 대신하며, 제시한 의견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자아인식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실행되어지길 기대하며 토론을 마칩니다. 수고해주신 연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 하수정 (2011). 부산시 초등학교 5, 6학년의 이성교제 실태와 성지식, 성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3). **청소년의 사랑: 감춰진 10대의 이성교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Gilman, R. & Huebner, E. S. (2006).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who report very high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3), 311-319.
- Suldo, S. M., & Huebner, E. S. (2004a). Does life satisfaction moderate the effects of stressful life events on psychopathological behavior during adolescence?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9(2), 93-105.

『중학생의 팬덤활동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토론문

방은령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청소년팬덤활동이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과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매우 흥미롭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이 팬덤활동과 다문화수용성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가설도 흥미진진하다. 팬덤에 대해 과거엔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끼치는 팬층만을 팬덤이라 칭한다'는 통념을 가진 경우도 있었지만¹⁾ 오늘 날 청소년들의 팬덤활동은 분명 사회문화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팬덤활동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주제로서 청소년 팬덤활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토론자는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두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연구모형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의 함의에 대한 것이다.

1. 연구모형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확보되었는가?

흥미진진한 연구가설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가 약하다는 것은, 본 연구의 가장 큰 약점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다문화수용성이고, 독립변인은 팬덤 활동이며, 공동체 의식의 경우, 팬덤활동과의 관계에서는 종속변인이 되고,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세 변인 간의 경로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매우 약한데, 특히 연구자가 제시한 팬덤활동과 공동체 의식 및 팬덤활동과 다문화수용성간의 경로는, rationale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이 세변인 간의 경로에 대한 rationale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몇몇 부분에서 기술상의 수정이 필요한데, 먼저 표와 그림 제목을 정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그림 2의 경우, '측정모형의 확인적요인분석결과', 표 6의 경우, '구조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유의성 검증결과'로 표기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또한 모형 적합도에 대한 설명(표4,5)에서도 χ^2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모형적합도는 양호하지 않으므로, 결과해석에서의 기술상 주의도 요구된다. 매개효과검증에서도, bootstrapping의 경우,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므로, 표 7의 경우, 구조회귀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및 SMC를 제시한 표와 별도로 매개효과의 추정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상한-하한)을 기술한 표를 제시하는 것이 보다

1) “서태지로 인해 팬덤이란 단어를 처음 접한 사람들이 그런 통념을 가졌다고 한다”

<https://namu.wiki/w/%ED%8C%AC%EB%8D%A4> 2016.11.14.일자 인출

적절할 것이다.

또한 결론에서도 팬덤 활동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결과와는 일부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도 요구된다.

2.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팬덤활동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공동체의식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서 팬덤활동이 공동체의식을 경험하는 활동을 할 때, 비로소 다문화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팬덤활동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팬덤 문화를 조성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청소년팬덤활동이 다문화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와 공동체 의식이 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매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연구자에게 질문을 던지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조안나, 이은경, 장미경(2016). 중학생의 팬덤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인문학 논총*, 40, 201-226. 경성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부모 애착 관련 관계 변수 및 시간 변수가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문

유홍식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두 연구자의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데이터 추적패널 중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6학년의 시계열적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실증 연구라 할 수 있다. 연구자들께서 관심을 가진 내용을 간략히 정리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시에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시간적 부재,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6학년이 되어서 평가하는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학술적인 의미에서 해석하자면, 초등학교 학령기 초기(1,2학년)의 부모애착과 관련된 양/질적 변인들이 초등학교 학령기 후기(6학년)에 지각되는 또래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추적 데이터에 기반해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시의 자녀-부모간 양적 상호작용과 질적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측면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점을 가진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더라도,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적 양과 함께(양보다는)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즉 보내는 시간동안의 질적인 내용이 부모-자녀간 애착관계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2학년에서 3학년까지 성장과정에 걸쳐 부모가 자신들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신들의 생활에 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자녀의 행복과 만족에 그대로 ‘전이’(transfer)되는 점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향후 관련 연구들이 탐색해야 할 부분은 부모와 자녀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내용이라 판단된다.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과 관련된 시간 변인과 질적인 관련 변인들이 고려되었지만,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 방식, 양육 방식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자료는 시계열적인 패널 조사이기 때문에 향후 측정 문항을 추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관련 학문분야의 학술연구들이 이를 어떻게 보완적으로 탐색해 보아야할지에 대해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모-애착의 형성시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부모와 자녀간 애착의 발생시기와 구체적 형성시기는 초등학교 1,2학년보다는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왔다. 마지막으로, 맞벌이이라는 부분에 맞추어 “모 주중 근로시간”을 보고 있지만, 실증 연구들은 추후 아버지의 과도한 근로시간, 가족의 형태의 함께 고려하여 분석하거나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자들에게서는 향후 추가적 분석을 통해 또래 애착의 하위척도별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추가해주시면 더 풍부한 연구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는 ‘의사소통’, ‘신뢰’, ‘소외’를 통합하여 ‘또래애착’으로만 분석하셨다. 추후 하위차원별로는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었지는 제시한다면 다

른 연구자들의 후속연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 가지 수정을 요하는 기술부분이 있다.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연구결론(11쪽)과 연구결과의 기술내용(7쪽)은 다소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자들은 “2차 년도와 비교해 3차 년도에 어머니의 맞벌이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어머니의 근로시간 및 방과 후 보호자 부재정도도 3차 년도에 소폭 증가하였다”고 제시하고 이를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결과 부분에 제시하신 <표 2>(8쪽)의 기술통계부분과 관련된 기술 내용에는 어떠한 추론통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2차년도의 자료와 3차 년도의 자료간에 유의미한 차이나 증가를 통계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평균의 차이를 해석하고 있다.

『초기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종단분석 연구』에 대한 토론문

손병덕

(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의 연속적인 발전과 변화 규칙을 찾고 두 변인이 종단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며 더 나아가서 앞으로 청소년의 발전을 예측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흥미 있는 연구주제를 선택하여 사회요구에 부응하려는 연구를 시도하여 의미 있는 연구로 사료된다. 연구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에 대한 고려를 제안한다.

먼저, 문제제기에서 청소년기에 또래관계가 중요하고, 사회적응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밖의 주요 변인들, 예를 들어 학업성취도, 경제상황, 인터넷, 학대 등의 문제들에 앞서 또래관계이어야 하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연구문제에서 주로 종단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선행연구 검토에서도 또래애착,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적 변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연구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의 또래애착 경험이 중학교로 가서 전혀 다른 또래관계를 형성할 터인데 초등학교 또래애착 경험이 이미 전혀 다른 또래애착 관계에 들어간 아이들에게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가능성을 살펴보는 노력이 요청된다. 이것과 관련한 연구결과는 표 4에서 나타나 있는데, 연구자는 중1의 삶의 만족이 중2의 중3의 또래애착에, 초5의 삶의 만족이 중1의 또래애착에, 중1의 또래애착이 중3의 또래애착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이론적 배경에서,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또래애착의 논의에 있어 또래애착의 개념화에 더하여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삶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아동말기~중등 청소년의 삶의 특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분석이 요청된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의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도 청소년에게 연관된 삶의 만족도 관련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최근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삶의 만족도 혹은 행복지수 관련 과제들의 검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연구대상 선택에서 초 4 패널을 선택한 주요 이유를 진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논의 및 결론 ‘둘째, 삶의 만족도는 시간의 흐름에 안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를 설명할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함께 준비하는 단계를 함께 지냈었기에 초5부터 중3까지는 안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준비하는 단계를 거쳤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분명하지 않다.

‘넷째, 삶의 만족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래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부분 분석도 삶의 만족도가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현장적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서 또래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삶의 만족 척도는 총 3문항으로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 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삶의 만족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학교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할함수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관계 분석』에 토론문

임성택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패널 데이터가 가진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의미 있는 연구모형과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이 큰 연구 결과를 도출한 연구자에게 존경을 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통제변수의 설정 근거는? 본 연구에서 포함시킨 통제변수들은 어떠한 근거에서 통제변수의 지위를 가지는가? 외생변수의 지위조건은 다양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외생변수로 고려되어야 할 근거가 기술될 필요가 있다.
- 이론적 배경을 특별히 구분하여 기술 이유는? 이론적 배경을 특별히 분리하여 기술하여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지 않아 보인다. 현재의 이론적 배경의 내용들은 굳이 별도로 기술될 만큼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 현재대로라면 서론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 분할 함수적용의 근거가 통계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연구에서 청소년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추정함에 있어 분할함수 성장모형 도입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무변화 모형, 선형모형, 이차함수 모형, 분할함수 모형의 적합도가 비교되었다. 적합도 지수를 보면, 무변화 모형과 선형모형은 모든 변수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합도 지수가 불량하여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분할 함수모형과 이차함수 모형은 경쟁모형으로서 특별히 어떤 것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기 힘들어 보인다. 게다가 삶의 만족도를 제외한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의 경우에는 이차함수모형이 상대적으로 더 적합해 보인다. 그런데, 모형의 간명성과 설명력이라는 점에서 연구자들은 모든 변수들에 대해서 분할함수 모형을 선택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통계적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예컨대, 카이스퀘어 값이 사례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은 있지만 적어도 두 모형간 델타 카이스퀘어 값($\Delta\chi^2$)을 산출해서 그 통계적 의의도를 판정하는 것은 사례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두 모형을 모두 같은 조건(같은 사례수)에서 적합도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피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 초기치와 두 시간간의 변화를 공분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현재의 결과<표 5>를 보면 세 변수(삶의 만족도, 학습활동, 교우관계) 모두 초기치가 높을수록 두 시기 변화율이 모두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또한 모든 변수의 초기치가 낮을수록 두 시기 변화율이 모두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실 통계학적으로 높은 점수는 낮아지고, 낮은 점수는 높아지는 경향, 즉, 평균치로의 회귀현상(regression to the mean)현상이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은 특별한 계기

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높았던 점수들은 낮아지고, 낮았던 점수들은 높아지는 자연스런 통계학적 확률 현상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초기치와 시기적으로 근접해 있는 초등학교 시기 변화율(S1)간의 공분산 절대값 크기가 초기치와 상대적으로 먼 시점의 중학교 시기 변화율(S2)간의 공분산 절대값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 있다. 이는 평균치로의 통계적 회귀현상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가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해석상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연구가 가지는 연구의 제한점으로 기술될 필요도 있다.

- <표 7>에서 각 시기간 삶의 만족도에 대한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의 설명효과의 특징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특징은 초기치, 초등학교시기변화율, 중학교 시기변화율의 관계에서 모두 같은 기간내에 한하여 학습활동과 교우관계가 삶의 만족도를 유의 있게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시기 간 교차를 고려하면(시기를 달리하면), 삶의 만족도에 대한 학습활동과 교우관계의 설명력이 통계적 의의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단, '교우관계I → 삶의 만족도 S1'은 제외). 연구자는 각각의 경로를 풀어서 복잡하게 나열식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이러한 특징을 파악하여 그 특징이 가지는 의의와 시사점을 축약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소소한 문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교우관계의 든간 내적합치도 계수가 .565~.655인데 이것이 양호한 신뢰도 계수로 평가될 수 있는지?
- [그림 1]의 연구모형에서 측정변수의 기호가 혼란을 줄 수 있음. 예컨대, S는 'Satisfaction'의 약어로 표기된 것 같은데, '학습활동'의 측정변수로 설정되어 있고, 'H'는 '학습활동'의 약어로 표기된 것 같은데, '삶의 만족도'의 측정변수로 설정되어 있음. 만약 토론자가 잘못 읽었다면, 상관 없는 일이지만 그림 밑에 주(note)를 부여함으로써 이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표 5>의 결과해석 기술시에 반올림의 자릿수를 표의 값처럼 3자리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값들이 작다보니 지나친 반올림은 해석상의 왜곡을 가져옴. 현재는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하다보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함. 예컨대, '또한 초등학교 시기의 변화율(S1)과 중학교 시기의 변화율(S2) 간 공분산은 -.00로, 초등학교 시기에 더 많이 향상할수록 중학교 시기에는 다소 덜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독자의 혼란을 불러일으킴. <표 5>에 의하면, 실제로는 그 값이 -.002로 통계적 의의도가 있으나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하다보니 연구자가 -.00로 기술하게 되었음
- 마지막으로 모든 설명에서 소위 '영향'으로 표현되는 인과적 관계는 소극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 실험자료가 아닌 조사자료의 경우에 그것이 아무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이라 해도 '관계' 내지 '설명'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 '인과관계'로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우리는 현재의 연구자들처럼 청소년들이 학습에 많이 참여하고,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들의 삶이 만족할수록 그러한 기반에서 학습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교우관계도 더 좋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조방정식 분석이라 해서 이 두 가지 해석을 한 가지 방향으로 결정해 주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상관자료를 인과적으로 설정하여 분석해줄 뿐인 것이다.

『순차적 경로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도의 잠재집단 간 종단적 변화 분석』에 대한 토론문

임성택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분석에 공을 들인 연구자에게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논점들을 제기해 본다.

- 연구의 목적상 그리고 연구결과상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도의 잠재집단 분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집단 유형화가 연구자가 논문에서 제기한 다문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를 상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다문화 정신의 기본중 하나는 어떤 개인을 집단의 유형으로 구분하기 보다 하나의 독립적 개체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집단유형화는 연구자의 관심사는 충족시키겠지만,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도에 어떠한 의의가 있을까?
- 자아존중감, 다양한 인간관계, 성별을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도의 설명변인으로 설정하였는데, 단순히 그러한 변인들이 개별적으로 중요하다는 점 이상으로 그러한 변인들을 설정하게 된 통합적 배경과 의의 및 의도는 무엇일까?
- 잠재집단명이 잠재집단 분류의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가? 이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문제중 하나는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수용도라는 두 가지 변수별로 잠재적 집단수를 결정하여 각 집단별로 차별적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수용도 모두에서 4개 유형의 잠재집단이 분류되었다. 그 특징을 요약하면[그림 4와 5 참조], 공동체 의식은 4개의 집단이 초기치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이를 늘리면서 최종시점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 ‘확산형’의 형태를 띠는 반면, 다문화 수용도의 경우에는 반대로 초기치에서 큰 차이를 보이다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차이를 줄이다가 최종시점에 이르러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렴형’의 종단적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집단 구분의 한 축인 초기치를 기준으로 한 수준명(최고, 중간, 중하, 최저)을 잠재집단 구분에 적용하는 것이 다문화 수용도의 경우에는 초기치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적용가능 하지만, 초기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공동체 의식의 경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게다가 현재와 같이 공동체 의식의 잠재집단 명을 ‘초기치수준-변화율’로 표현하는 방식(최저-감소, 최고-증가, 중상, 유지, 중상-감소 등)의 명칭은 분류된 잠재집단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 수용도 잠재집단 구분명과도 혼동을 주어 독자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토론자는 적어도 공동체 의식의 4개의 잠재집단명은 초기치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단일차원(변화율)만을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공동체 의식의 경우에 선형을 가정하였으므로, 4개의 잠재집단을 증가형, 유지형, 약감소형, 감소형으로 명명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공동체 의식의 잠재집단 명칭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것들이 다문화 수용도의 잠재집단으로 전이되는 확률 <표 7>을 설명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연구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은 공동체 의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확산형으로, 다문화 수용도는 수렴형으로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단순히 ‘그렇다’는 사실에 더하여 ‘왜 그러할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 ‘5.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도 잠재집단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이라는 제하의 회귀분석에서 연구자는 ‘16개의 잠재집단(공동체 의식 4개 집단 X 다문화 수용 4개집단) 전이 유형 중 중상 수준의 공동체 의식 초기치를 갖고 시간 흐름에도 변화양상이 없는 집단(중상-유지)이 가장 낮은 다문화 수용도 초기치를 가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문화 수용도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는 집단(최저-증가)으로 전이되는 전이 유형의 경우에’ 공동체 의식과 다문화 수용도에 작용하는 영향변인들(성별, 자존감, 인간관계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혹시 이 진술은 다른 유형(15개 유형)의 집단은 회귀분석에서 제외했다는 것인지? 만일 그러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혹시 이 특정 유형만을 선별적으로 회귀분석한 이유가 표 7에서 제시한 것처럼 그 유형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장 공동체 의식변화 유형에서 다문화 수용도 변화 유형으로의 높은 전이율(98.2%)이기 때문인 것인지? 만일 그러하다면, 토론자는 이러한 판단에 따른 회귀분석 대상의 선별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그리고 이 분석에서 회귀분석의 독립변인으로 설정한 변인들은 패널조사 2차년도 자료들인지요? 만일 그러하다면, 그 설명효과는 종속변인이 2차에서 4차와 6차로 멀어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지요? 일부의 경우(교사관계)를 제외하고 현재의 결과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 각 측정도구를 설명함에 있어서 예시 문항을 제시해 주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제시된 측정도구들은 예시문항을 확인할 수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청소년 직업가치 유형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에 대한 토론문

임성택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진로탐색과 준비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는 매우 가치있는 주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진로연구의 경우에 개념에 기초한 가설 검증 식 변인연구보다는 인간중심의 유형연구를 위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이 연구의 가치를 평가할만하다.

다만 추가적으로 논점을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서 분류된 잠재집단의 명칭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연구자가 명명한 4집단의 명칭도 훌륭하지만, 그 명칭이 다소 길어 각 집단의 특징을 분명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토론자는 보다 간명한 명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명칭을 제안하고자 한다. 집단 1은 세 가지 직업가치요인에 걸쳐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高균형가치형’, 집단 2는 ‘내적 가치형’, 집단 3은 ‘中균형가치형’, 집단 4는 ‘외적 가치형’으로 간단히 명명해도 각 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서로 다른 분석방법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표 6의 잠재집단별 각 독립변수의 수준을 비교한 분산분석 결과와 표 7의 다항 로짓분석의 결과는 중복성이 있어 보인다. 토론자가 생각하기에는 둘 중 하나를 생략해도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보여주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토론자라면, 표 6의 결과를 생략할 것이다.
- 청소년의 개인적 변인과 가정 및 학교관련변인들이 4가지 잠재집단에 속할 확률을 산출한 다항 로짓 회귀분석결과에 대한 논의가 보다 요약된 형식으로 밀도 있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독립변인들이 청소년의 4가지 유형의 직업적 가치 유형화를 결정하고 있으며, 어떠한 변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집단 유형화에 작용하는지에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다항 로짓 분석결과를 개별적으로 나열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 분석결과들이 종합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는 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 현재의 연구는 종단자료중 6차 년도 자료만을 사용하여 횡단적 차원에서 직업 가치 유형 잠재집단을 구분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를 탐색하였다. 따라서 1차에서 5차 자료에서도 현재의 6차 자료에서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종단적 차원에서 세 가지 직업가치 요소들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잠재집단 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밝히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소소한 문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논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 이후의 기술(프로파일 유형별 기술통계와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앞서 명명된 잠재집단 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집단 1,2,3,4,등의 명칭보다는 정해진 잠재집단의 성격을 규정하는 명칭(高균형가치형, 내적 가치형, 中균형가치형, 외적 가치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용이하고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논의 및 결론에서조차 집단 1,2,3,4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과도한 인지과부하를 경험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와 요지도 파악하기 힘들게 한다.
- 가급적 높은 숫자가 직업의 가치를 높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통계치를 산출함으로써(역산 처리) 각 표와 그림에서 별도의 주석을 통하여 숫자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독자의 혼란을 줄여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대부분의 설명변수(독립변수들)들도 마찬가지임.